



우리나라 에너지政策方向

郭 相 瓊
(高麗大 政經大 教授)

1. 序 言

이란의 政局이 昏迷狀態에 이르자 世界의 거의 모든 國家가 이 한 나라의 政局에 至대한 關心을 쏟고 있다. 이것은 곧 이란이 西方 石油供給의 1 割이라는 事實 때문이다. 이제 많은 國家가 第二의 石油波動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거의 모든 經濟活動이 「에너지」消費와 直接 關聯되어 있고 「에너지」源中에서도 石油가 가장 重要的 것이기 때문에 이란事態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은 오히려 당연하다. 1973年末頃 石油供給이 急激히 減少되어 世界經濟는 크게 뒤흔들렸다. 그 때의 石油波動이 있는 以後 世界經濟는 아직도 高率의 「인플레이션」을 完全히 克服하지 못한 채 一般景氣도 完全히 回復하지 못하고 있으니 西方國家가 이란事態에 依한 第二의 石油波動을 크게 우려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하면서 「에너지」需要를 急激히 增加시켜 놓았다. 石油를 全量 輸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石炭도 輸入해야 하는 우리의 處地로서는 다른 나라와 같은 立場에서 世界石油供給狀況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는 經濟活動(生産, 消費 및 分配 等의 活動)에 極히 重要하다. 「에너지」의 供給은 生産活動에 必需的이고 消費生活에서도 「에너지」가 必要 不可缺이다. 따라서 經濟成長이 高度로 持續되면 「에너지」需要도 크게 增加하게 된다. 이렇게 重要的 「에너지」를 어떠한 政策으로 需給을 調整하고 對處해 나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政策方向에 對하여 直觀的인 拙見을 披瀝해 보고자 한다.

「에너지」問題는 世界的인 것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世界 「에너지」의 現況과 展望을 간략히 論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需給 現況과 展望을 간단히 觀察한 다음 「에너지」政策方向을 論하고자 한다.

II. 世界「에너지」의 現況과 展望

1. 「에너지」問題

「에너지」의 二次源은 火力電氣와 같이 一次 「에너지」源이 投入되어 發生되는 「에너지」源이고 一次源은 石油, 石炭, 天然「가스」, 水力, 原子力, 潮力, 太陽熱, 地熱 등과 같은 것이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로는 石油가 가장 重要한 「에너지」源이다. 「에너지」로서의 有用性에서도 그러하지만 生産(採掘)費用에서도 가장 低廉하기 때문이다. 石油의 供給이 원활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까지 「에너지」문제는 심각하지 않았고 「에너지」의 供給 制限이 世界經濟를 攪란시킨 것도 石油供給의 急激한 制限이었던 것이다. 石油에 對한 需要가 극히 막대하면서도 重要하기 때문에 석유의 공급이 이 수위에 充당되지 못하면 「에너지」問題는 그만큼 심각해지고 經濟는 攪란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로나 앞으로 어느 期間까지 「에너지」問題는 주로 石油의 需要-供給의 「갭」即 超過 需要에서 비롯되고 끝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問題의 核心은 어느 特定한 將來에까지 石油의 需要-供給「갭」이 如何한가와 石油에의 代替 「에너지」源을 如何히 開發하는가에 매어 있다. 그래서 世界 「에너지」

의 現況과 展望은 주로 石油供給의 現況과 展望 그리고 石油에 對한 代替 「에너지」源의 開發에 對한 論議로 掃着된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需要

自由世界의 1次 「에너지」需要는 1972年 現在 石油換算 日當 約 8,100萬배럴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增大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아 서기 2,000년에는 日當 約 1億 6千萬 내지 2億 7千萬배럴이 될 것으로 予測하고 있다. 이 需要에 對한 予測의 差異는 그때까지의 經濟成長率, 「에너지」價格, 節約政策 및 代替 「에너지」開發 等の 差異를 감안하여 予測한 結果이다. 이와같이 앞으로 世界의 「에너지」需要는 급격히 增加할 展望인데 특히 石油에 對한 需要가 계속하여 급격히 증가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石油에 代替될 「에너지」源이 開發되어 用途와 費用面에서 實用化되면 石油에 對한 需要가 완만하게 증가되거나 下落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劃期的인 革新을 가져 오리라고는 今世紀末까지 期待하기 어렵다고 한다.

3. 「에너지」供給

世界의 많은 國家는 거대한 量의 石炭埋藏量을 保有하고 몇몇 國家에는 油砂와 油頁石을 石油換算 數兆배럴이나 되는 埋藏量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天然「가스」도 1976年 現在 石油換算 約 4千億배럴이나 되는 量이 埋藏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火石燃料은 用途, 輸送, 生産費 등에서 石油에 比해 너무나 큰 制約條件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對한 需要는 限定되어 있으므로 이의 供給도 限定되어 있다. 또한 水力이나 原子力과 같은 「에너지」源도 供給 制限이 극심하므로 그 重要도와 比電이 대단히

났다.

따라서 가장 重大한 問題는 石油의 供給이다. 1975年 現在 全世界의 中극적 可採石油 埋藏量은 1兆3千億 내지 2兆배럴이라 한다. 地質 專門家の 見解에 따라 差異가 있다. 이러한 供給可能量을 根據로 장래의 공급에 대한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石油埋藏量에 對한 情報은 대단히 不確實하다. 1978年 여름 現在 確認된 石油埋藏量이 1975年の 埋藏量에 比해 2倍 以上이 된다는 說도 있다.

특히 中南美와 「아프리카」大陸에서 現在까지 全世界에서 發見된 石油埋藏量을 증가하는 埋藏量이 追加로 發見될 수도 있고 中共에도 막대한 量의 石油가 埋藏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數年이 지날 때까지는 石油埋藏量이 正確히 얼마나 될 것인지 確認되기가 어렵기도 하다.

4. 需要와 供給間의 「갭」

1976年 1月 現在까지의 需要와 供給에 對한 情報을 根據로 將來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을 予測하여 比較해 볼 때 1980年代부터 이미 供給不足이 계속 增大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만약 石油埋藏量이 짐작과 같이 많다면 石油供給이 正常的으로 이루어지는 限 今世紀 까지는 需要 「갭」이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現在까지의 公式的으로 確認된 石油埋藏量과 앞으로 需要增大를 比較해 볼 때 供給不足이 今世紀 內에 대단히 심각해질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는 石油供給이 正常的인 狀態를 유지하는 限 石油의 需給「갭」은 石油의 埋藏量 追加 發見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與否와 程度가 決定될 것이다.

5. 「에너지」 危機

지난 1973~74年の 「에너지」波動 以來 누구나 關心을 갖는 것은 「에너지」 危機가 또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 있을 것이면 언제 또 있을 것인가이다. 現在의 이란事態와 같은 우발적인 石油의 供給 中止가 發生하지 않고 正常的인 需給 過程에서 1985年이나 1990年頃 「에너지」 危機가 있을 것이라고 展望하고 있다. 이는 供給보다 需要가 더 크게 增大될 것이라는 展望에서 予測된 것이다. 그러나 만약 世界の 石油埋藏量이 크게 追加로 發見되고 生産되어 供給이 需要를 充當할 수 있게 되면 危機는 到來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價格面에서 超過 需要에 依한 油價의 急上昇으로 「에너지」 危機가 닥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供給不足은 결국 「에너지」 危機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인데 이것이 今世紀에 밀어닥칠 것으로 展望하고 있는 것이다.

6. 우리나라의 立場

現在까지 우리나라에 石油埋藏量이 있다고 確認되지 않았고 石炭埋藏量도 대단히 制限되어 있으며 水力和 潮力의 開發도 容易치 않은 데다 原子力 增加도 막대한 費用과 長期間을 要한다. 우리나라의 無煙炭은 熱量에서 「에너지」 源으로 認定되지 못할 만큼 劣等한 것이고 所得 水準의 增加로 利用도 어려워져 간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立場은 石油, 石炭, LNG (液化天然「가스」) 등을 輸入해야 하는데 특히 石油 輸入이 계속 增大될 展望이다. 國內의 全量 石油 供給을 輸入에 依存해야 하고 石炭도 앞으로 상당량을 輸入해야 할 地境이므로 우리나라에서의 「에너지」 問題는 餘他 많은 非産油國과 같이 世界「에너지」情勢와 展望에 따라 크게 左右되어야 하는 立場에 處해 있다.

Ⅲ. 우리나라 「에너지」 需要 - 供給의 現況과 展望

1. 需 要

高度經濟成長을 持續해온 우리나라에서는 産業이 發達하고 그 構造도 改善되었으며 消費패턴(특히 住生活 樣式)도 많이 變하였는데 앞으로 계속 高度成長이 持續되면서 이에 따른 生産活動과 消費活動의 變遷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에 對한 需要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게 될 것은 당연한 展望이다.

[表 1]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需要 現況과 이의 展望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보면 「에너지」 需要 總量이 크게 增加되었는데 産業部門

과 輸送部門의 比重이 늘었고 그 대신 家庭部門의 比重이 줄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되어 갈 것으로 展望된다. 이것은 GNP의 增加率과 「에너지」 需要의 增加率(兩增加率의 比率이 對 GNP 彈力值임)이 總需要에서는 비슷하나 部門別로는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 需要의 構造가 變遷되고 있을 것임을 볼수 있다.

2. 需要 - 供給

우리나라의 「에너지」供給은 國內 賦存資源에 依한 것이 極히 보잘 것 없고 앞으로 電力開發에서 水力, 潮力, 原子力 等を 더욱 開發하게 되면 이것으로 어느 정도는 充當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大部分의 「에너지」供給은 앞으로 크게 輸入에 依存하게 될 展望이다. 특히 1次 「에너지」源은 輸入 依存도가 높다: 有煙炭 輸入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展望이니 말이다.

[表 1] 長期 에너지需給 展望

(單位: 無煙炭換算千M/T)

	實 績 值		豫 測 值			需要部門別				GNP彈力值
	1970	1975	1981	1986	1991	1971 { 75	1976 { 81	1982 { 86	1987 { 91	
産業 部門	15,728 구성비 40.6	25,109 46.5	57,346 57.8	98,427 61.0	162,725 62.5	1.00	1.33	1.14	1.06	
輸 送 部 門	3,894 구성비 10.0	5,672 10.5	11,487 11.6	21,789 13.5	40,125 15.4	0.80	1.13	1.37	1.30	
家 庭 部 門	16,198 구성비 41.8	19,045 35.2	23,479 23.6	30,248 18.9	40,445 15.6	0.34	0.32	0.52	0.60	
其 他 ¹⁾	2,937 구성비 7.6	4,223 7.8	6,953 7.0	10,972 6.8	16,931 6.5	0.77	0.78	0.96	0.91	
需 要 合 計	38,757 구성비 100.0	54,049 100.0	99,265 100.0	161,436 100.0	260,226 100.0	0.70	0.96	1.02	1.01	

註: 1) 政府需要와 輸出需要 部門
資料: 韓國開發研究院刊,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表2〉는 우리나라의 「에너지」需給에 처한 源別構造의 長期展望이다. 여기서 보면 産業部門에서 輸入有煙炭이 石油에 많이 代替되고 輸送部の 石油需要가 크게 늘며 家庭部門에는 電氣와 石油需要가 느는 대신 石炭需要增加는 鈍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한편 供給에서는 輸入「에너지」가 크게 늘고 国内「에너지」의 比重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予測된다. 이러한 展望은 곧 国内「에너지」需給에서 輸入依存度가 더욱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3. 代替「에너지」開發

우리나라에서도 石油에 代替할 新「에너지」開發에 關心을 모으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技術과 財力으로는 有用성과 費用에서 期待하기 어렵다. 따라서 當分間은 新「에너지」開發에 依한 代替「에너지」의 供給이 있을 것으로 展望할 수

가 없다고 하겠다. 外國의 「에너지」研究 報告 擘에서도 今世紀末 以前에 劃期的인 代替「에너지」開發이 이루어 질 것 같지 않다는 展望이다.

IV. 「에너지」政策

1. 決定要因

우리나라에서 「에너지」需給에 對한 政策을 樹立하며 實踐함에 있어서 考慮해야 할 主要 要因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첫째, 世界 「에너지」展望이다. 「에너지」源 中에서 가장 重要한 原油 供給을 全量 輸入해

〔表2〕 長期 에너지需給構造 展望

(單位: 無煙炭換算千 M/T)

	1975		1981		1986		1991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構成比
總 需 要	54,049	100.0	99,265	100.0	161,436	100.0	260,226	100.0
電 力	9,724	18.0	23,798	24.0	41,171	25.5	66,849	25.7
石 炭	16,430	30.4	24,921	25.1	42,083	26.1	65,417	25.1
石 油	21,189	39.2	45,998	46.3	75,148	46.5	118,356	45.5
都 市 用 加 斯	-	-	-	-	-	-	7,885	3.0
薪 炭	6,706	12.4	4,548	4.6	3,034	1.9	1,719	0.7
總 供 給	54,049	100.0	99,265	100.0	161,436	100.0	260,226	100.0
國 內 에 너 지	23,306	43.1	25,793	26.0	28,525	17.7	24,516	9.4
水 力	655	1.2	987	1.0	2,127	1.3	2,127	0.8
無 煙 炭	15,945	29.5	20,258	20.4	23,364	14.5	20,670	7.9
薪 炭	6,706	12.4	4,548	4.6	3,034	1.9	1,719	0.7
輸 入 에 너 지	30,743	56.9	70,702	71.2	116,495	72.2	195,087	75.0
石 油	29,733	55.0	63,738	64.2	88,790	55.0	130,113	50.0
都 市 用 加 斯	-	-	-	-	-	-	7,885	3.0
有 煙 炭	1,010	1.9	7,964	8.0	27,705	17.2	57,089	22.0
原 子 力	-	-	1,770	1.8	16,416	10.1	40,623	15.6

註: LPG를 원료로 한 都市用가스의 需給은 石油需給에 포함
資料: KDI刊, 長期經濟社會發展 1977~91年

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세계「에너지」展望에 따라 石油 依存度를 과연 줄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줄여야 한다면 언제 얼마를 줄여야 할 것인가 등이 「에너지」政策 決定에 우선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세계 「에너지」事情이 좋아져서 비교적 저렴한 價格으로 特別한 制限없이 石油가 供給될 수 있다면 石油에 對한 需給을 特別히 調節하기 爲한 強力한 政策을 구태여 꼭 必要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만약 今世紀末 以前에 世界の 石油供給 不足이 豫想과 같이 심하게 된다면 石油需給에 對한 強力한 政策이 마련되어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生産增加에 따른 「에너지」需要의 展 望이 重要な 要因이라고 본다.

高度經濟成長을 追求하고 産業生産 中에서도 重化學工業이 比較的 더 크게 팽창됨에 따라 「에너지」需要도 急速히 增大될 것이다. 生産 增加를 계속 유지하고 産業構造도 改善하면서 「에너지」需要를 줄일 수 있는 方案과 石油와 같은 輸入「에너지」의 依存度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對한 賢案을 모색하여 이것을 「에너지」政策에 考慮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輸入「에너지」中에서도 어느 것을 늘리고 어느 것을 줄일 것인가도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消費增大와 消費構造의 變更에 따른 「에너지」需要의 增大와 패턴도 政策 決定에 對한 要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消費性向과 構造가 변천되는 것을 토대로 「에너지」需要構造와 增加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여 政策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고 住宅과 같은 것은 耐久期間이 길므로 이를 政策에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에너지」價格과 「에너지」需要와의關 係이다. 「에너지」價格變化에 對한 「에너지」需

要의 彈力值를 推定하여 「에너지」 價格政策을 「에너지」政策에 包含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確保의 特殊性이 「에너지」政策 決定의 要因이 된다. 「에너지」供給國이 카르텔을 形成하고 있고 많은 國家가 「에너지」確保를 爲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確保(거의가 石油의 備蓄임)에는 막대한 投資가 必要한데 이 投資는 民間이 크게 負擔할 것으로 期待하기 어렵다. 특히 海外投資는 政府가 적극적으로 介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여섯째 「에너지」와 關聯되는 公害問題, 安全性 및 外交問題 等도 要因으로 看做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國內賦存 「에너지」資源의 開發 및 生産展望이다. 우리나라에 賦存되어 있는 火石 燃料는 지금까지 確認된 바로 無煙炭에 不過한데 앞으로 無煙炭 生産을 增加시키는 데에는 너무나 難解한 問題들이 많다고 볼 때 이러한 問題들을 「에너지」政策決定에 적극 고려하도록 하고 余他 「에너지」源의 開發可能性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政策方向

가. 石油 依存度

「에너지」政策 中에서 가장 重要的 것은 石油依存度를 얼마나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될 것이다. 물론 근본적인 것은 世界石油需給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中南美와 아프리카大陸에서 巨大한 石油埋藏量이 追加로 發見되어 開發·生産될 것이라면 石油依存度를 반드시 대폭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上記의 매장량이 아직 正式으로 確認되지 않았으므로 지금까지의 確

認된 公式情報에 의거하여 石油依存度에 對한 政策을 樹立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今世紀末 以前에 石油危機가 到來한다는 見解를 받아들인다면 石油依存度를 낮추도록 政策의 方向을 굳혀야 할 것이다. 그래서 石油가 必要不可缺한 部門에 限해 石油需要를 增加趨勢로 유지시키고 石油需要를 줄여도 經濟活動에 큰 支障을 招來하지 않을 部門의 石油需要는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輸送部門의 石油需要는 他「에너지」源으로 代替가 不可能하므로 줄일수가 없고 産業用 石油需要는 有煙炭으로 代替가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줄일려면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家庭과 商業部門의 石油需要는 우리나라의 無煙炭 生産事情을 考慮해 볼 때 世界「에너지」展望이 극히 悲觀的이 아닌 限 增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家屋構造의 變更은 長期間을 要하는 것이고 強力한 行政遂行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家庭用에서는 輸入 LNG (液化天然「가스」)의 供給이 重要한 石油代替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現在까지의 狀況으로서 石油依存度를 낮추는 方向으로 政策을 樹立해야 하겠으나 世界の 石油需給展望이 不確實하고 數年內에 그 윤곽이 훨씬더 明確하게 나타날 것으로 볼 때 石油依存度를 얼마만큼 낮추어야 하느냐의 決定的인 政策은 數年後로 미루어야 한다고 본다. 必要以上으로 石油依存度를 낮춘다고 해서 有利한 것만은 아니다. 價格이 低廉하고 有用한 「에너지」源인 石油의 供給이 원활하다면 쓸 수 있는 데까지 쓸 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항상 事前에 미리 對備해야 하기 때문에 長期計劃을 세울 必要가 있다.

나. 石炭開發

우리나라의 無煙炭은 우리나라에서 家庭用 燃料로서는 대단히 重要한 「에너지」源이다. 그러나 우선 우리나라 無煙炭은 그 質에 있어서 石

炭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熱量도 낮고 安全性도 없는 것이다. 한편 無煙炭의 生産面을 보면 炭鑛의 生産條件도 계속 不利해지고 있고 앞으로 특히 炭鑛勞務者 確保와 이들의 賃金引上이 심각한 問題로 浮刻될 展望이다. 無煙炭 價格을 크게 上昇시켰을 때 無煙炭에 對한 需要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여기에는 庶民用 燃料確保 問題도 있다. 그러면 政府는 언제까지나 質도 낮고 危險하며 使用에 不便한 無煙炭을 增産 또는 生産을 계속하기 위해 補助를 계속해야 할 것인지 의문이다. 不良品中의 不良品인 무연탄의 生産을 위해 무작정 補助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國內石炭開發에 對해서는 時限計劃을 樹立하여 實踐하고 開發의 限界를 分明히 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다. 原子力과 潮力 發電

原子力 發電을 建設하는 데에는 費用이 너무나 막대함으로 增設이 쉽지 않고 危險이 뒤따르므로 安全性이 問題된다. 그러나 石油供給의 制限 可能性을 고려할 때 계속 추진하여 언제라도 有利한 條件으로 技術導入이 可能할 때에는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潮力發電은 現在의 技術로서는 費用이 크게 問題되므로 實現化하기에는 時期 尚早라고 할 수 있다.

라. 石炭 輸入

産業用 有煙炭을 輸入하는 것은 주로 産業用에서도 製鉄과 같은 特殊産業用이고 一般産業에서는 石油에 代替하기가 쉽지 않으나 價格이 낮으면 어느 정도 代替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發電用으로도 輸入有煙炭을 쓸 수 있다. 問題는 有煙炭과 石油나 LNG와의 費用差異와 有煙炭輸入에 必要한 施設과 交易相對國과의 契約條件 等이다. 항만시설에는 막대한 投資와 長期間이 所要되므로 石炭輸入을 爲한 施設에 對해서는 신중을 기할 必要가 있다.

無煙炭輸入은 輸入과 國內生産을 잘 比較 調和시켜야 할 것인데 앞으로 所得水準이 向上됨에 따른 生活樣式的 變化와 住宅構造改良 等を 고려할 때 無煙炭輸入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꼭 輸入할 必要가 있더라도 임시 연료확보에 對한 對策에 그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石炭輸入을 爲한 生産國과의 契約은 現在로서는 長期契約보다는 短期契約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世界石炭展望이 不確實하므로 長期契約의 경우 위험부담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마. LNG 輸入

世界的 天然「가스」埋藏量을 보면 1976年 現在 石油換算 約4千億배럴이다. 追加埋藏量이 계속 發見되고 있고 或者是 世界的 埋藏量이 거의 無限定에 가깝다고까지 主張하고 있다. 한 마디로 現在로서는 대단히 豊富하다고 본다. 그리고 天然「가스」는 家庭燃料로서 대단히 有用할 뿐만 아니라 發電用으로도 便利한 「에너지」源이다. 다만 輸送과 저장에 막대한 投資가 必要하다. 특수 탱커와 저장시설 그리고 地下파이프라인 설치에 막대한 資金이 所要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시설을 갖추면 石油에 對한 代替도 되고 有用하게 쓸 수도 있다. 資金確保가 可能한대로 輸入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現在 一部 民間企業이 紹介하여 推進하여 擔當할 기미를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政府는 이를 적극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바. 新「에너지」開發

太陽熱과 같은 新「에너지」開發은 先進工業諸國이 이에 막대한 投資와 人力을 동원하여 開發하고 있으므로 기다렸다가 開發된 技術을 導入하며 우리나라 與件에 맞도록 適應시키는 것이 有利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령 太陽熱

利用을 獨自의으로 開發하여 突用했다가 效率과 費用에서 不利한 것이 되고 變更이나 改造가 어려울 경우 損失이 너무나 클 것이므로 이것은 先進國의 技術開發에 依存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피하게 될 것이다.

사. 石油 貯藏

할 수만 있다면 石油를 大量 貯藏하여 備蓄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石油貯藏施設에는 막대한 投資가 必要하다. 막대한 投資를 하며 저장을 꼭 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고 貯藏量을 決定하는 것도 대단히 重要하다. 핀란드와 같이 地形條件을 잘 研究하고 파악하여 地下貯藏을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石油貯藏 問題를 安保의인 次元에서 다루어야 한다면 여기서는 論外로 돌린다.

아. 政策의 次元

「에너지」는 國家 全體的 經濟的인 重要한 問題이므로 「에너지」政策은 一個 部處의 水準에서보다 國家的인 次元에서 樹立되고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必要한대로 直接的인 統制와 調節이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한다. 「에너지」源의 確保問題는 私企業이나 個人이 쉽게 해결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의 不可能하기도 하다. 그렇다고 直接統制만 가지고 모든 問題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價格政策을 效率의으로 遂行하며 市場機能에 依한 自動調節을 기할 수도 있고 補助와 課稅를 통한 誘因政策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한가지 分명한 것은 「에너지」가 經濟活動 全般에 關聯되는 것이면서 供給에서는 特別한 調節을 要하는 것이므로 「에너지」政策方向이 經濟活動 全般을 크게 左右할 수 있다는 것이다.

